

# 민족의 영광과 행복으로 빛나는 10년

## 백두산정신을 지닌 위대한 인민을 키우신 불멸의 은공

### 백두의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10년전 세계는 나름대로의 추측과 예상을 하며 오늘과 다른 눈빛으로 조선을 주시하고있었다. 지구정치의 무게변화로 이어진 대국상을 당한 조선이 과연 어떤 길을 택할것인가에 대한 예측과 혼돈의 물음표들이 집중되고있던 그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말하신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의 령정을 결심하시었다.

생눈길을 걷는 심정으로, 생눈길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각오로! 생눈길, 단순히 엄동의 추위가 상시적인 위협을 가하고 때로 거목도 휘부리는 강풍과 준령이 막아서는 자연의 길을 말하는것이 아니었다.

그 길은 계승의 천만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과판만장의 력사속에 사대주의자들과 대국주의자들의 끈질긴 회유와 설득, 엄청난 강압과 도전을 자주와 인민이라는 대의명분으로 물리치며 헤쳐오신 백두의 행군길의 련속인것이다.

자주와 폭제, 정의와 부정의의 대결로 압축되고 적대세력들과의 총포성없는 전쟁이 지속되고있는 오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대들이 백두의 행군길을 노래로만 이어간다면, 유람식이나 관광식의 련속인것이다.

자주와 폭제, 정의와 부정의의 대결로 압축되고 적대세력들과의 총포성없는 전쟁이 지속되고있는 오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대들이 백두의 행군길을 노래로만 이어간다면, 유람식이나 관광식의 련속인것이다.

전통계승, 정신무장이 최대의 국력이고 최강의 전략무기이다. 위대한 전통, 위대한 정신이 마련된 백두의 행군길에서 단 한치의 탈선도, 한걸음의 담보도 있을수 없다는 신념과 의지로,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혈전만리, 위대한 장군님의 눈보라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심정으로 력사의 생눈길을 앞장서 헤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이다.

그 길은 사랑과 헌신의 길이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에게 세상에 제일 부러운것이 없는 행복을 안겨주시려 경애하는 그이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위민헌신의 령정이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사회주의 정든 집의 새벽문을 남먼저 여시고 강성부흥의 령명을 불려주시었고 별이 익는 깊은 밤을 사색의 열정으로 밝혀시며 변명의 미레를 설계하시었다.

보통의 결단과 의지로서는 각오하기 힘든 그 길은 강국의 패일을 앞당기기 위해 일각일초의 멈춤도 드림도 없이 달려야 하는 험로였고 그 공화국을 고사시키려는 제국주의의 악랄한 봉쇄와 압박속에 가슴아픈 희생도 이겨내야 하는 사생결단의 혈로이기도 하였다.

그이의 자욱자욱은 혹심한 자연피해를 가시기 위해 걸으신 북변의 산자락길과 동해의 돌서덜길, 농촌마을의 진창길에도 새겨져있고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기 위해

세계가 경탄한다. 강권과 부정의가 이중삼중으로 옥죄인 최악의 제재압박속에서도 팔목할만한 경이로운 기적을 떨치며 자기 특유의 변형을 창조하는 공화국인민을 《위대한 조선의 영웅인민》이라 찬탄한다. 반만년민족사를 넘어 인류사에 특기할, 위대하다그밖에 말할수 없는 영광과 행복을 마련해가는 공화국인민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빛나는 력사가 찰찰충암을 이룬 백두산에 혈맥을 잇고 기적과 승리를 떨치는 마음들이 백두의 행군길, 력사의 생눈길을 헤치시며 이민위천, 위민헌신의 위대한 력사를 수놓아오신 절세위인의 거룩한 자욱을 되새겨본다.

깊은 밤, 이른새벽 가림없이 찾아신 위험천만하고 27hp의 작은 배로 과도세찬 풍랑을 헤치신 바다길에도 어려어있었다. 이렇게 조국, 인민에 대한 사랑을 용암처럼 끓이시며 력사의 생눈길, 위민헌신의 천만리를 이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그이께서 앞장서 헤치신 생눈길은 사회주의의 승리, 강성조선의 패일로 이어진 자존의 길, 백두의 길로 펼쳐졌다.

### 《백두산대학》의 첫 스승이 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앞장서 헤치신 생눈길에서 력사가 알지 못하는 《백두산대학》도 태어났다.

《백두산대학》, 그 이름만 들어도 예국열, 투쟁열이 끓어솟게 하는 고귀하고 벅찬 부름이다. 흔히 대학이라고 하면 전문기술지식을 가르치는 높은 단계의 학교교육기관을 생각한다.

세계에는 오랜 력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도 있고 위인과 명인들을 배출한것으로 하여 유명한 대학들도 있다.

하지만 언제, 어디에 민족만대주의의 기초로 되고 열원이 되고 기치로 되는 전통과 정신, 신념과 의지를 가르치는 그런 대학이 있었어보았는가.

백두산 김대장과 백두광명성을 우리러바든 백두산을 지붕으로, 교단으로 하고 수많은 항일영웅들을 배출한 자랑을 안고있는 《백두산대학》에서는 초연내 배인 밀영들과 모닥불자리들이 교정이 되고 교재가 되며 《유격대행진곡》을 비롯한 빨찌산군가가 교가로 울려 퍼진다.

여기서 배운다. 혁명의 사령부를 결사옹위하여 자기의 한목숨을 서슴없이 내던 오종훈7현대의 정신과 무에서 유를 창조한 연길폭탄정신, 자력갱생의 정신을, 두눈을 원수들에게 빼앗기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치던 백철불굴의 정신과 혁명적관투의를 죽어도 버릴수 없는 신념으로 간

### 백두의 행군길을 역세계 이어가도록

경애하는 원수님이라 생눈길을 헤치며 《백두산대학》의 학생들로 자라난 공화국인민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두렵지 않고 그 무엇도 못해낼것이 없는 강성한 인민이 되었다. 백두령장의 자욱자욱에 발걸음을 맞추며 력사의 광풍에 변색될수 없고 세월의 이끼에 더더욱 묻힐수 없는 위대한 전통, 위대한 정신을 심장에 쏘아박았고 백두의 행군길을 곳곳이 갈것이라느니 줄겨 맞으며 푸른 소나무의 절개, 백옥같은 불변, 참대같은 끈음으로 사는 강자들로 자라났다.

이 나라의 그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제재와 봉쇄를 할려면 하라, 우리는 붉은기를 높이 들고 백두의 행군길을 곳곳이 갈것이라느니 줄겨 맞으며 푸른 소나무의 절개, 백옥같은 불변, 참대같은 끈음으로 사는 강자들로 자라났다.

대국들의 강권과 간섭이 《정의》와 《진리》로 강요되는 오늘 현실에서 사대와 의존을 모르고 예속과 굴종을 단호히 배격하며 압박에 위축되지도, 유혹에 변절되지 않는 공화국인민의 배양과 의지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는 것처럼 인민을 떠받드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랑과 명도로 더욱 빛나는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공화국인민은 자기 특유의 존엄과 재부로 간직한다.

위대한 우리 인민이라고 불려주시는 절세위인의 사랑과 믿음을 안고 적대세력의 악랄한 제재봉쇄와 압박도, 자연의 광풍도 보란듯이 이겨내며 사회주의문명을 가꾸어간다.

미래과학자거리와 령명거리, 삼지연시, 양덕은천문화휴양지, 대청리, 강북리, 걸덕...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겨울 때 자기 손으로, 자기식으로 창조하고 가꾼것이어서 긍지는 하늘에 닿고 흐르는 눈물 또한 맑고 뜨거우것이라.

회열과 감격으로 분출하는 인민의 눈물속에 행복으로 벅찬 오늘이 복된 삶이었고 비약으로 마중오는 매일의 변명이 있다.

세계를 둘러보면 수많은 생령들이 황금만능에 질식되고 약육강식에 짓밟혀 사랑과 정이 화석화된 동토대에서 시들어가지만 이 땅의 주인들은 절세위인께서 생눈길을 헤치시고 열어주신 존엄사상, 인민사랑, 조국변영의 데로를 따라 강국의 기상떨치며 보다 휘황한 미래로 힘차게 달려간다.

백두산을 닮아 창공을 치솟는 메뚜기같이 담차게, 천지와 같이 순결하게, 백두의 칼바람처럼 갖은 풍파를 몰아내며 거세차게 천변만화, 천지개벽의 기적과 승리를 떨치며 21세기를 위대한 김정은세기로 빛내어간다.

백두의 행군길을 걸으며 최강의 강자로 자라난 공화국인민은 백두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의 행군길, 력사의 생눈길을 승리와 영광의 천만리로 이어갈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길에서

### 갈라지면 살수 없는 유기체

주체68(1979)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한 일군에게 국제무대에서 론의되고있는 우리 나라의 통일전망에 대한 견해를 물으시었다.

일군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고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의 통일문제는 결국 하나의 조선인가 아니면 두개의 조선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단호한 립장을 천명하시었다.

자신께서는 언제나 하나의 조선만

을 생각하고있으며 두개의 조선을 순간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지면 살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고 하시면서 조선은 둘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이다는것이 자신의 확고한 의지이라고 하시었다.

레국의 뜻어린 그이의 웅심깊은 말씀을 마디마디 뇌리에 새겨넣는 일군은 과연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비범하고 탁월한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에 머리가 숙여졌다.

### 남녘땅을 울린 조의대표단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크나큰 은정속에 인생말년을 조국과 민족을 위해 참담계 산 남조선 현대그룹의 정주영명예회장이 사망하였을 때였다.

그의 사망을 두고 누구보다 비통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유가족들에게 친히 조의문도 보내주시고 화환도 잘 준비하여 조의대표단이 직접 서울에 가지고 나가도록 하시었다.

하여 2001년 3월 24일 낮 12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보내주신

화환이 하늘길을 날아 서 울시 청운동 그의 령전에 정중히 놓여지게 되었다. 정주영명예회장의 령전에 놓여진 조의화환, 그것은 단순한 꽃의 묶음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사상과 비념, 정경과 신앙이 다르다고 해도 통일애국의 길에서 한번 손을 맞잡은 사람과는 끝까지 정을 나누시고 의리를 지키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인간애, 민족애의 세계가 그대로 어려어있었다.

본사기자

##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사신 남녘인민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있어서 남녘의 인민들은 비록 마음은 멀리 있어도 언제나 마음속가까이에 두신 귀중한 존재, 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있으신 겨레의 한 부분이였다.

이미 오래전에 분렬된 조국 땅에서 사는 참된 애국자는 남녘동포들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며 우리 나라에서 남녘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한 참된 애국이란 있을수 없었다 절절히 말씀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이시이다.

남녘에 대한 장군님의 정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것인가를 말해주는 감동깊은 사연들이 력사의 갈피갈피 새겨져 오늘도 전해지고있다.

그 갈피갈피를 더듬느라던 어느 파수중합농장을 보시면서 조국이 통일된 후 여기서 난 과실을 인천함에 실어다 놓고 남조선인민들에게 공급

하자고 하시던 자애로운 모습이 어려어오고 가을든 남반부지역이 격정되어서 거듭 전화로 날씨를 알아보고 창밖에 쏟아져내리는 비를 바라보시며 비록 남녘땅에 비를 준것은 하늘이지만 바라던 소원이 성취되어 오늘 밤에는 발전장을 잘것갈다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정경은 모습을 다시 비추는 것만 같다.

어찌 그뿐인가. 판문점공동경비구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하여 당장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기일발의 사태가 조성되었을 때에도 조선인민군 해군경비정에 의하여 남조선이성이 구조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구원된 남조선이민들을 혈육의 정으로 따듯이 맞아주고 보살피주도록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해당한 대책까지 모색 취해주신분도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행복에 웃는 자식보다 불행에 우는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남녘겨레가 당한 불행을 두고 그리고 마음쓰시며 끼니도 건너지도 편히 지내지 못하신 밤은 또 그 얼마이던가.

한지에 나앉은 수재민들을 생각하니 밥을 먹어도 목에 걸릴것같다고 하시며 그들에게 구조물자를 보내줄데 대한 결정을 발표하도록 하시고 구조물자가 아무리 많아도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뛰 나뛰나해도 인민들이 자기와 같이, 도와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고 하시며 알았이 고르 고 오리우리 다들어서 보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육친적 사랑과 더불어 나라가 분렬되어 근 40년만에 처음으로 막대한 량의 구조물자들이 남조선인민들에게 가당던 가

슴뜨거운 화폭도 새겨졌다. 또 남조선의 어느 백화점이 무너져내려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서는 술한 아이들이 어머니를 잃고 울고있을때에 그들이 누구보다도 불쌍하게 되었다고, 정말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룰수가 없다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그 웅성이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이렇듯 친어버리와도 같이 따스하고 자애로운분이시였기에 출신과 경력, 주의주장이 달랐던 수많은 사람들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이의 품에 찾아와 안길수 있었었던 것이에 대한 격찬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민족의 최대국상을 당한지 10년이 훌렀지만 애비이장군님에 대한 그리움과 호모와 그리움의 마음은 나날이 더욱 뜨거워만지고있다.

본사기자 리연선

에로부터 눈은 풍작의 정조, 축복의 상징으로 일러왔다. 하지만 12월에 조용히 내려쌓이는 흰눈은 어이하여 인민의 마음속에 그리움의 산을 쌓는것인가.

언제인가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영결식이 진행될 수도의 100리던 도에서 장군님께서 가시던 안된다고 몸부림치던 인민 군인들과 인민들의 모습은 그 누구에게 연출해내라고 하여도 할수 없고 재현할수도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 12월의 흰눈

잇을수 없는 피눈물의 12월에 눈이 많이도 내렸다. 하늘도 비분에 잠겼는가 강산을 흰빛으로 물들이며 하얗게 쏟아져내리는 눈발속에서 민족이 낳은 대성인이신 위대한 장군님과 뜻밖에 영결하게 된 큰 비애와 상실의 아픔속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던 이 나라 인민의 눈앞에 흰눈이 불려오는 가슴저미는 추억은 무엇이었던가.

돌이켜보면 눈보라세찬 2월의 하늘가에 봄우뢰를 터치며 탄성하시며 백두의 만년설을 밟으며 성장하시였고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평생 쉬임없이 이어가신 현지도강행군의 길에서 그러도 맑은 찬눈을 맞으며 눈앞에 흰눈이 불려오는 가슴저미는 추억은 무엇이었던가.

어느 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자신의 흰눈철학은 교시회생이라는 뜻깊은 가르침을 하시었다.

자아희생! 추위가 닥쳐들면 소리없이 내리고내려 대지를 포근히 덮어주는 흰눈처럼, 따뜻한 봄날이 오면 스스럼없이 고스란히 녹아 대지에 양분으로 스며드는 흰눈처럼 애국애민의 의지로 온몸을 깡그리 불태우신 그이의 불변불휴의 헌신과 로고가 있어 세계가 조선의 운명을 두고 숨을 죽이고 바라보던 그때에 고난을 박차고 주체조선의 첫 인공지구위성이 만리대공으로 치솟아오르고 주체철과 주체비료, 주체섬유의 장쾌한 흐름, 거창한 CNC바람, 대동강파수 종합농장과 고산과수종합농장이 무도당시대의 무도당으로 솟아나는 기적적 사변들이 번발하지 않았던가.

혁명을 위하여 흰눈과 같이 심신을 다 바쳐야 한다는 숭고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조국의 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기위한 위대한 장군님, 그이의 천만로고가 흰눈에 미쳐와 인민은 다 땅의 눈비를 우리가 다 맞으리니 장군님 찬눈길 더는 걸지 마시라고 간절히 아뢰였던생의 마지막시기에도 흰눈을 맞으시며 인민행렬차에 오르신것이다.

그래서이다. 해마다 겨울이면 눈이 오건만 12월에 내리는 흰눈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한평생을 길이길이 존하며 인민의 마음속에 솟아송이 내려앉는다.

본사기자 김영춘

이 고스란히 녹아 대지에 양분으로 스며드는 흰눈처럼 애국애민의 의지로 온몸을 깡그리 불태우신 그이의 불변불휴의 헌신과 로고가 있어 세계가 조선의 운명을 두고 숨을 죽이고 바라보던 그때에 고난을 박차고 주체조선의 첫 인공지구위성이 만리대공으로 치솟아오르고 주체철과 주체비료, 주체섬유의 장쾌한 흐름, 거창한 CNC바람, 대동강파수 종합농장과 고산과수종합농장이 무도당시대의 무도당으로 솟아나는 기적적 사변들이 번발하지 않았던가.

혁명을 위하여 흰눈과 같이 심신을 다 바쳐야 한다는 숭고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조국의 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기위한 위대한 장군님, 그이의 천만로고가 흰눈에 미쳐와 인민은 다 땅의 눈비를 우리가 다 맞으리니 장군님 찬눈길 더는 걸지 마시라고 간절히 아뢰였던생의 마지막시기에도 흰눈을 맞으시며 인민행렬차에 오르신것이다.

그래서이다. 해마다 겨울이면 눈이 오건만 12월에 내리는 흰눈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한평생을 길이길이 존하며 인민의 마음속에 솟아송이 내려앉는다.

본사기자 김영춘

2019년 촬영